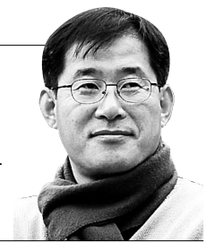
| 현불 논단 |

환경위기, 작은 실천으로 넘자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지상관측 이래 '최악 폭염'
중국 · 유럽도 이상고온 현상

바다에 불가사리 방생한
아이에게서 배우는 교훈
작은 노력이 큰 결과 만들어

냉방온도 상향, 대기전력 차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어느 나그네가 이따금 바다를 찾아가곤 했다. 그런데 멀리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다가가서 보니 어린 소년이었다. 소년은 계속해서 바닷물에 손을 뻗어 작은 무언가를 집어 들고는, 그걸 다시 바다로 던졌다. 나그네는 더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건넸다.

"얘야, 네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소년은 서서 그 사람을 올려다보더니 대답했다.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는 거지?"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해도 떴고 이제 썰물이 질 거예요. 불가사리가 죽게 될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나그네는 말했다.

"그래도 얘야, 바닷가는 끝없이 펼쳐져 있고 불가사리도 끝없이 있을 텐데, 그 사실을 모르는 거니? 해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 일이란다!"

이번에도 소년은 몸을 굽혀 불가사리를 또 하나 집어 들어서 바다로 던졌다. 불가사리가 물에 닿자 소년이 입을 열었다.

"그래도 저것 하나는 달라졌잖아요."

8월 1일 뉴스에는 서울 39.6℃이고, 강원도 홍천 40.6℃로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에 역대급 폭염이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1994년 가장 무더웠던 날보다 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초열대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라시아 전역에 '열돔'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불볕더위가 북반구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10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22.5℃였지만 100년 지난 2017년의 경우 24.5℃로 2℃ 상승했으며,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평균기온은 산업혁명이전과 비교해 평균 1.2℃가 상승했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1.5℃에 불과 0.3℃만 남은 상황이다.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에서는 50년간의 관측된 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맺었으며, WMO(세계기상기구)는 "세계 120곳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5년의 평균 농도가 400.0PPM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결국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의 팽창, 바닷물의 온도상승, 기후대의 사응, 극지방의 빙하가 줄어들고, 해류와 지형, 그리고 지구의 기류의 변화로 인해 지형적으로 폭염과 폭우와 폭설 등 격렬한 이상기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되 사용해도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겨울엔 20℃이하로 사용해야한다. 냉난방 온도를 1℃ 조정할 경우 연간 110kg CO_2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일회용 종이컵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라. 엄청난 양의 CO_2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1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를 이용해 분리수거만 잘해도 연간 188kg의 CO_2가 줄어든다.

친환경 상품 사용, 환경마크 제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 등도 CO_2 감소에 효과적이다. 샤워 시간을 1분정도 줄이고, 빨래를 모아서 하는 것도 환경보호 실천 방법이다.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보자. 음식물 쓰레기만 조금 덜 배출해도 연간 15조원과 CO_2를 줄일 수 있다.

나 하나 바꾼다고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결국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特別기고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회장 안동일)는 7월 27~28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21차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했다. 3000여 불자들은 무더운 여름을 염불정진으로 이겨냈다. 그 뜨거운 현장의 후일담을 참가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한다. 〈편집자 주〉

무더위도 잊게 한 '염불삼매'



정정식
전국염불만일회 법사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은 즐겁다. 그 어디론가가 사찰이고, 도반과 함께 수행정진하는 것이라면 더욱 즐겁다.

7월 27일 구례 지리산 화엄사에서 열린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21차 염불정진대회에 참석 차 제주도에서 아침에 비행기에 올랐다. 화엄의 성지이자 불국토 도량 화엄사에서 열린 이번 염불만일대회는 어느 때보다 뜻 깊다고 생각됐다. 이미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고, 제주공항을 이륙해 광주공항에 도착해서까지 이 느낌은 이어졌다.

공항에서 도반들을 만나 버스를 이용해 화엄사에 도착하니 어느덧 점심시간이었다. 배고픔도 잠시 전국에서 모인 염불만일회 도반들을 만나니 무더위의 고통도 잊게 됐다. 서로 반갑다고 껴안고 악수를 하고 한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화엄원에서 법산 스님의 격려사로 입재식이 시작됐고, 우리는 동산불교대학 집행부에서 계획한 염불행(念佛行)에 들어갔다. 염불행은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며 정진하는 것이다. '힘차게! 신나게! 멋있게! 염불합시다'란 캐치프레이즈에서 볼 수 있듯이 북과 장구 등을 치며 한바탕 신명을 더하면 어느새 시간이 가는줄 모르게 된다.

사실 1만일동안 염불 정진을 하는 것은 본인과의 인생을 건 약속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108배를 생활화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변함없이 외친다.

근 30년 가까이 하나의 수행을 이어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도반은 1998년 8월 6일 고성 건봉사에서 만일결사에 입재했다. 이날로 7296일이 됐다. 반환점을 돌고 2025년 회향이 몇 년 남지 않아서인지 도반들의 열정은 더욱 높았다.

이번 대회에도 경기도 이천에서 80세가 넘은 도반이 참여하기도 했다. 2025년에는 내 나이도 78세가 되니 사실 평생을 염불정진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무더위도 많은 나이도 정진열기를 꺾을 순 없었다. 우리들의 염불정진은 자정까지 이어졌다. 오랜만에 만난 도반들과 함께 염불정진을 했기 때문에 피로감도 적었다.

아침공양 후 휴식 시간없이 염불 정진은 계속됐다. 이날의 수은주는 37℃를 가리키고 있었다. 찌는 듯한 더위도 그늘 아래 염불 속에 잊혀졌다.

2박 3일간의 이번 염불정진은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동안 해이했던 삶을 되돌아 보며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제주도에서 사찰 안내 봉사를 하며 살고 있다. 이날의 정진을 밑바탕으로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이젠 더욱 열심히 불교문화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외부 필진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社說

불교계 에너지 난민에게 관심을

연일 수은주가 37℃를 넘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월 중순까지도 이러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보시행을 펼쳐 청량함을 더하고 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8월 초부터 2주간 병원 정문에서 택시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나눠줬다. 불교계 병원뿐만 아니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기관들도 다양한 무더위 극복 캠페인과 용품 전달 등을 진행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번 여름은 더 덥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지만 여전히 무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더운 방안에서 버티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독거어르신의 소식도 들려온다.

이 같은 이상고온이 매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찰과 불교계 복지기관에서 '에너지 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스스로의 더위를 피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함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부처님이 설한 지혜다. 자비행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자세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닌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려는 불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시혜가 아닌 함께 나누는 여름이 됐으면 한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짜증으로 가득차고 사회의 인심은 메말라 간다. 이럴 때 일수록 이웃을 향한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욱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청년 포교 대축전에 거는 기대

조계종 포교원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와 함께 청년 · 대학생을 위한 포교대축전을 10월 6일 연다. 이른바 '청년대학생 신행축제'다.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와 불교문화체험 마당 등이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9월 말까지 포교콘텐츠를 SNS로 홍보하는 해시태그 페스티벌을 비롯해 다양한 청년들의 신행생활을 담은 UCC공모전도 열린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미래세대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일선 대불련과 대불청의 손에만 청년포교를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종단 차원의 청년포교와 장려책도 진행됐지만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포교 전선을 구축한 사례는 많지 않다. 부족한 불교계 재정현황이나 인력 상황을 보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번 청년 · 대학생 신행축제는 포교원과 대불련, 대불청이 함께 연대해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유튜브 등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향후 사찰, 청년회, 종립대학 등과 연계한 대축전으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이 같은 신행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포교원을 넘어 범종단적 차원서 적극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불교계의 힘이 모자란다면 우회적인 방법으로 기업의 참여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 수 있다.

한국불교는 오래 전부터 청년층 포교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년기까지는 종단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이들을 불자로 이끌 수 있다. 자립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